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3.00원 상승한 1,102.70원에 마감

21일 환율은 전일대비 3.00원 상승한 1,102.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30원 상승한 1,100.00원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이후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 1,10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했다. 미중 갈등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는 90.4선으로 상승하였다. 외국인 순매도가 3거래일 연속 이어져 환율은 전일대비 3.00원 상승한 1,102.7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66.08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00.00	1104.00	1097.70	1102.70	1101.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63.35	1067.10	1061.00	1064.58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46.68	1351.15	1337.35	1348.80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4	-1.75	-2.48	-3.47
결제환율(수입)	-0.03	-0.48	0	0.64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영국 코로나19 변종 우려에... 1,10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02.70) 대비 2.10원 상승한 1,103.5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영국에서의 신종 코로나19 변종 확산으로 유럽과 뉴욕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조정이 나타나면서 상승이 예상된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2%대 하락하고 영국 파운드화는 장중 한때 2.5% 급락하기도 하였다. 각국 유동성 완화정책으로 계속 상승하던 위험자산이 내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6.50위안 부근에서 강세가 제한된 위안화 환율,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전환, 국내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 강화 우려는 환율 상승 압력 요인이다.

다만, 전일 삼성중공업 4,082억원, 현대삼호 중공업 4,512억원의 선박 수주가 있었고 네고 물량 유입에 환율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99.67 ~ 1107.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07.3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10원 ↑
	■ 美 다우지수 : 30216.45, +37.4p(+0.1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3.4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977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